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래학자와 함께 하는
진로 여행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메이커의 시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커의 시대라면

뭔가를 만들어낸다, 창조한다,
발명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발명의 시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메이커의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인재의 덕목은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먼저 두 가지를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경지수이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해결능력입니다.

보통 우리가 산업 시대
특히 20세기 초·중반

아마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능지수 즉 IQ라는 지능지수를
대단하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그 인간의 능력을
머리에 제한적으로 두고

그것도 기억력이나 어휘력,
추리력, 공간지각력과 같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능력을 평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98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빠른 속도로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EQ 즉 감성영역의 능력도 존재한다

그래서 마음과 관련된 능력도
중요하다고 해서

공감능력이나 소통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평가척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지수가 등장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메이커 시대와 연관된

지수 하나를 예로 들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AQ입니다.

AQ는 'Adversity Quotient' 라 해서

'역경지수'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는데요.

저는 여기서는 '실천의식'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역경지수의 사전적 의미는
어려움을 대처하는 생각과 행동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정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미래학자나 성공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요.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다 인터뷰를 해 보니까

공통점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

성공한 사람 중에는
공부를 못 했던 사람은 더러 있었지만

역경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사회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더 경쟁력 있을까요,

자기 앞에 펼쳐진 어려움을
남에게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저는

미래의 메이커 시대에
필요로 하는 덕목으로서

역경지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메이커 마인드,

다시 말해서 저는 이것을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융합인재 마인드’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의미 있는 얘기를 남긴

피터 드러커의 어떤 주장을 본다면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성공은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또한 꿈을 함께하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커 마인드로서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래서 메이커 마인드에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이라는 단어, 개업이라는 단어,

창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이 거의

과거나 현재 관점으로 해석되고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부연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취업을 한다고 하면 개업이나
창업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성형외과의
이웃 동네의 의사 선생님이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면서
자기의 일을 해나가더라.

그럼 그것을 바라본 한 청소년이

“나도 그럼 성형외과 의사가 되어야지.”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도 졸업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가 된 거죠.

그럼 이것은 창업일까요?
개업일까요?

개업이죠. 왜?

이미 누군가가 하고 있는 일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창업이 아닙니다. 개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아무리
수석으로 졸업했더라도

임상 경력을 **50~60**년을 가지고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도

그 성형외과 의사가
의지만 있고 체력이 받쳐준다면

정년 없이 계속
병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풍부한 경력,
임상경력을 가진 선배 의사를

제아무리 학교에서 수석을 했다고 해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미래에는 절대 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 마인드로
미래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거의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바로 메이커 마인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성형외과를 하긴 하는데

저렇게 성공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저 우리 동네의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의

약점은 무엇인가, 한계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서
그 전문성을 보완해서

새로운 성형외과를 오픈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융합 성형외과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개업이 아니라
창업입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소년들을 위한 메이커 마인드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두 가지 이상을 섞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섞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어떻게 한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버리면 된다.

그러면 그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고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융합에 대해서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쉬운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음식에도 좋은 궁합이 있고
나쁜 궁합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궁합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아침에 급할 때

우유 한 잔 먹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유에 꿀을 가미하거나

딸기를 함께 먹는 것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그런데 우유에 간혹 코코아 가루를
타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거의 맹물에 가까운

효과가 돼 버린다고 합니다.

서로의 영양소를
상쇄시켜 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음식에도 이렇게 좋은 융합과
나쁜 융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빵에 요구르트도 궁합이 좋고

빵과 주스도 그렇게 썩 좋은
음식궁합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본다면

자동차 에너지에서도
가솔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솔린과 산소를 결합, 융합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아쉽게도 탄산가스라는
오염원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수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산소와 결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는데요

그때의 부산물로

탄산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이 부족한 지구환경에서
자동차가 달리면서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물이 배출된다고 하면

이것은 에너지 차원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나 개인,
또는 인류 전체에게 의미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융합전략을 짜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일자리를

청소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

좀 가까운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것은 **2010**년도 사례입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멀티탭이라고 부르는 전기연결 장치가
우리 가정에 하나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6**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6**개짜리는
6개를 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어댑터들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을 때

산업 시대의 마인드로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생산성과 효율성만 따진 거죠.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은
그다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모두가 느끼고도
다 지나갔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북동부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에 있는

고등학교 **4**학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3**학년에 해당되겠죠.

고등학교 **3**학년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쓰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꼈어요.

"아,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수업 시간에 미술과 디자인
관련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스케치해 본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해서 그것을 선생님에게 제안했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벤처 지원하는 단체에 소개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채택이 됐어요.

그 결과 이것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창업하게 된 겁니다.

누구도 만들지 않은 것,
이거 복잡한 기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3D프린팅을 하는데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주문을 받고
주문이 들어온 만큼 어떻게 합니까?

3D프린팅을 해서 택배로 보냅니다.

그래서 직원도 초기에는
많이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빠른 속도로
이 제품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이때 이 친구는 나이 서른도 되기 전에

서른이 아니라
나이 스물다섯도 되기 전에

미국의 일약 청소년 백만장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창업의 시대가 미래이자,
가까운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육에서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대학을 보내려는

그런 풍토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학생이
나이 서른 되기 전에 이 친구처럼,

이 친구 이름이 제이크 지엔입니다.

이 친구처럼 30살이 되기 전에
정당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30살 이후부터는 이 부를
사회에 분배하면서

보람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리고

대학을 가야 된다
일단 대학가고 봐라 하시겠습니까?

물론 창업을 통해서
성공할 확률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도전하지 않게 하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보낸다면

이 사회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다중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 "인간의 능력에는
지능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가드너 박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가드너 박사도
한 4개 정도를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4개 정도로 시작한 다중지능이

사회 여기저기서
'이거 하나 더 추가하면 좋겠다.'

계속 의견을 받아들이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연구한 결과

지금은 그게 2배로 늘어나
8개의 다중지능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재작년엔가요?

아마 제 기억으로 2016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2016년 초에 가드너 박사가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 분야에서

다중지능 하나 더 추가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굳이 9번째 다중지능을 추가한다면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교수지능'이라고 합니다.

가드너 박사가 얘기한 원어는

'The Teaching-Pedagogical Intelligence'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교수지능'입니다.

자,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함축적이고요.

이것이 가리키는 미래지향적인 진로에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것이죠.

풀어서 얘기하면 동일한 개념도
다른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어찌면 미래에는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9번째 지능,
다중지능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교사, 학생, 정부,
교육청의 역할들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메이커 마인드의 관점에서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설정해 본다면

과거와 현재에는 주로
부모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돌보는 수준이었습시다.

그런데 미래에는 멘토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이들을
멘토링 하는 방향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자신과의 경쟁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메이커의 시대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